

NH투자증권, 베트남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 시작

등록 2017.08.02 14:20:34



【서울=뉴시스】이진영 기자 = NH투자증권은 이달부터 베트남 주식에 대한 온라인 매매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던 베트남 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(HTS)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(MTS)에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.

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'QV HTS' 또는 'QV MTS Global' 앱을 설치하면 된다.

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뒤 베트남 동화로 환전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.

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국내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선보였다.

NH투자증권은 또 올해 말까지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주식을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호찌민, 하노이, 인도네시아 3개 거래소 중 1개 거래소의 실시간 주식 시세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.

박진 NH투자증권 해외상품부장은 "베트남은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,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"면서 "고객들이 베트남 주식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했다"고 말했다.

NH투자증권은 베트남을 포함해 총 9개국의 해외 주식에 대한 온라인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전화통화로는 총 27개 국가의 주식 거래가 가능하며 24시간 실시간 주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